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마오로와 동료순교자
대축일 경축이동 제33권 43호(나해) 2013-9-22

[묵상]



천사들도 한국순교자를 대축일을 기뻐하며 찬양하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라 말씀하시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세상의 주인이신 당신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읍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오나
당신의 말씀 부끄럽게 여기오니
당신을 따르기 위해
나를 버릴 줄도,
나의 십자가 질 줄도 모르오니
당신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그 목숨을 구할 것이라 하신 말씀을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피 흘려 당신을 따르진 못하오나
당신과 한 편임을 기뻐하고,
목숨 바쳐 진리를 증거하고 사랑을 고백한
한국의 순교자들을 자랑스러워하오니
다시 오시는 그 날
각자가 가진 그릇대로
당신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저희를
부끄럽게 여기지는 말아주시시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튼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만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창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강덕희 올리아나 (생)김경수 시몬 & 최수현 베로니카, 이마태오, 신순철 가브리엘
주 일 낮 미사	(연)강덕희 올리아나, 이종민 베드로, 이명자 로사, 김인영 베드로, 이용식 베드로, 유정복 베네딕타, 이경용 야고보, 전시웅 요한, 고준희 제임스, 주용범 아브라함, 심아그네스 (생)이윤조 클라라, 박인규 요셉, 조은하 올리아나, 서용숙 에스텔 & 서성용 베드로, 진요한, 송영미 베로니카, 한장환 안토니오, 이준영 마르코 & 이제이미 크리스티나, 이형삼 요셉 & 이해숙 요세피나, 김그레이스, 김두영 시몬, 정애나 세라피나 & 정린다 겐마 & 정엘리스 클라라, 이효희 마리아, 토런스북구역가정들, 이행자 리드비나, 한국의방선교회후원회원들, 이장환 마르띠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지혜서(Wisdom) 3,1-9

화답송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눈물로 씨뿌리던 사 람 들, 환호하며 거두리 라.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겹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제 2독서 로마서(Romans) 8,31-39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던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복 음 루카(Luke) 9,23-26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345	343	343
봉헌	269	269	264
성체	Shout to the Lord	106	286
파견	그사랑 야훼께 감사하여라	345	사람뉘는 어부

올바른 성모신심

제1장 성모 공경의 역사

로마 교회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활동 무대였던 카타콤바에는 200년경에 그려진 성모 마리아의 그림들이 남아 있다. 성모 공경의 흔적이다. 사실 성모 공경은 이미 성경에도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으며 함께 기도 생활을 하였다(요한 19,27; 사도 1,14 참조). 아기 예수님에 대한 증언자로서 마리아의 역할은 마태오 복음에 잘 나타나 있고, 루카 복음에서 그 절정에 이른다. ‘처음부터 목격자’가 전해 준 대로 기록하고자 하였던(루카 1,2 참조) 루카 복음사가는 성모 마리아를 아기 예수님에 관한 모든 증언을 그대로 알려 줄 수 있었던 증언자로 채택하고 있다.루카 복음사가는 무엇보다도 성모 마리아야말로 ‘그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던 분’으로서 아기 예수님의 증언을 위한 적임자로 보았다(루카 1,45; 2,19; 2,51 참조). 초대 교회 때부터 시작된 이러한 성모 공경은 교회 역사에서 네 가지 성모 교의로 집약되고, 성모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 안에서 실현되고 있다.

우리나라 가톨릭 교회 역시 그 시작부터 성모 공경의 탁월한 신심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많은 순교자들이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간직하고 실천하였다. 특히 신유박해 이후 1811년 조선 교회신자들이 북경 주교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성모님의 전구를통해서 조선 교회가 재건될 수 있기를 간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1836년에는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하고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기 위해서 목주기도를 바치는 ‘대피회’(攄衣會)가 설립되었으며, 교우들이 자신들을 성모님의 종으로 바치고 특별한 보호를 구하고자 하는 ‘성의회’(聖衣會)도 이 무렵에 설립되었다.

제2대 조선교구장 앵베르 주교는 1838년 12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를 조선 교회의 주보로 정해 줄 것을 교황청에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그레고리오 16세 교황은 그때까지주보로 모시던 중국 교회의 주보 요셉 성인을 함께 모실 것을 조건으로 1841년 8월 22일에 마리아를 조선교구의 주보로 승인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목자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1845년 7월 23일, 리부아 신부에게 보낸 열여섯 번째 편지에서 우리는 그의 성모신심을 알아볼 수 있다.

교우들은 사흘 동안 먹지 못하여 극도로 쇠약해졌고 또 삶에 대해 절망하여 슬퍼져서 울며 “이제 그만이다. 살아날 수 없을 것이다.” 하고들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하느님 다음으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성모님의 기적의 상본을 보이면서 “갑내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성모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로 될 수 있는 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도움을 잃고 오직 하느님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기대를 걸고 잠을 자기 시작하였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비도 그치고 바람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계속>

신앙생활은 순교의 삶이다.

예전 종로거리에는 '단성사'라는 유명한 극장이 있었습니다. 이 추억의 거리는 많이 변해 옛날의 모습을 찾아 보기 힘듭니다. 지금은 종로3가 소방서와 파출소 앞에 '좌포도청 터'라는 표석이 우두커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선교구 6대 교구장 리델 주교님께서 옥중 수기를 쓰신 곳이 바로 '좌포도청 터'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에 죄인들을 붙잡아 두었던 곳인데, 천주교 박해시기에 리델 주교님께서도 '죄인'으로 잡혀 좌포도청에 수감되었습니다.

1878년 1월 28일, 리델 주교님은 5개월 동안 옥중에 갇혔으나 북경 주재 프랑스 공사의 교섭과 중국 정부의 주선으로 6월 5일 옥에서 풀려나, 7월 12일 만주로 추방되었습니다. 주교님의 회고록을 보면, 130여 년 전 조선 감옥의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델 주교님은 당시 감옥을 '지상에 존재하는 지옥의 상(像)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더위와 추위, 환기가 안 되는 좁은 공간, 초라한 식사로 인해 건강을 잃는 수감자도 많았습니다.

리델 주교님은 조선 입국을 준비하며 그의 형수 레오나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가슴에 십자가를 지니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아 조만간 그 십자가를 어깨 위로 짊어지려 합니다. 그 십자가를 늘 제 가슴속 깊이 새겨 간직하며, 조선 백성들 한가운데에 그 십자가를 단단히 심어 그 백성의 마음속에도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외국의 선교사들과 선배 신앙인들이 혹독한 감옥생활을 지내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이 평온함 역시 많은 이들의 희생의 대가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러두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루카 9,23) 물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오늘날에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해서 순교를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속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은 어쩌면 순교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삶 자체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순교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삶 속에서 충실하게 순교의 삶, 증거의 삶을 사는 것이 과거의 순교 못지않게 무척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신앙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순교의 상황을 용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전에 신학교 교수 신부님께서 순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순교할 상황이 닥치면 누가 순교를 할지 배교를 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순교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다. 미약한 우리 인간도 하느님이 도와주시면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할 것 같은 순교도 하느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것이 됩니다.

◆허영엽 아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장 비서실 수석비서

자연출산조절을 위한 센터들을 장려하여 책임 있는 부모됨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즉 자녀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모든 선택을 진실한 자기 증여라는 기준에 따라 내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88항 -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아영 아가다	박희자 마리아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서용숙 에스텔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테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순교자
성월

순교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으며, 예수님께서 기꺼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를 그들도 짊어졌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순교 선열들은 이 세상에 참된 삶과 생명을 일깨우고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모진 고문과 고통,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많은 이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고,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 성 김대전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이동 : 오늘 주일 22일(본당의 날) 미사후 친교장에서 전신자 대상 축하음식 나누기가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갖기 바랍니다.

◆ 성 빈첸시오 드폴 사제 기념일 맞아 감사행사

- 일시 : 9월27일(금) 저녁미사후 * 장소 : 강당
- 후원자들을 포함하여 교우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문의 : 박홍룡 요셉 빈첸시오 회장 ☎(310)283-5879

◆ 사회복지분과 정부해택 상담소 운영

- 상담내용 : 오바마건강보험, 저소득층프로그램, 메디케어, 메디칼 건강보험, 정부해택신청, 장례및 묘지구입방법 등
- 상담일시 : 매달 첫째주일과 둘째주일은 예약없이 상담, 셋째 & 넷째주일은 전화예약자만 상담
- 장소 : 아침미사후(첫,둘째주 강당) / 주일미사후 친교장
- 예약전화 및 e메일주소 : 사회복지분과장 이정훈 안셀모 ☎(310)908-8823, funeral1004@yahoo.com

◆ LA대교구 다민족·다문화축제 연례 미사 봉헌

- 일시 : 9월28일(토) 오전 9시30분
- 미사집전 : 알렉산더 살라자르 주교
- 슬로건 : "Our Faith and Our Youth are Our Strength"
- 장소 : LA대교구 주교좌 성당(555 W. Temple St. LA)
- 미사 전에 여러가지 행사가 준비되어있으니 가능한 한복

을 입으시고 오전 9시까지 도착하기 바랍니다.

- 문의 : 예영해 프란치스코 종신부제 ☎(213)249-2127

◆ 남가주성령쇄신봉사회 '성령체험 수기' 공모합니다.

- 내용 : 남가주성령쇄신대회 참가후의 성령체험 수기
- 규격 : Letter 용지 5매내외(글자크기 10포인트)
- 마감 : 2014년 3월31일(당선작발표 : 2014년 4월)
- 시상 : \$500(성부상), \$300(성자상), \$200(성령상)
- 접수 및 문의 : 강혜원 아네스 기도회장 ☎(310)780-0369

◆ 26차 남가주성령대회 CD가 나왔습니다.

- 가격 : \$20, 사무실에 비치중

◆ 친교자리 배식때 어르신들과 급한분들께 순서를 양보합니다.

- 지난주부터 소공동체가 봉사하는 친교자리(점심나누기)가 재개했습니다. 줄서서 기다리고 음식이 오가는 과정에서 간혹 무질서한 풍경이 벌어지곤 합니다. 어르신들과 급한분들께 양보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갑시다.

◆ 주보 광고에 협찬해주신 광고주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주 발행되는 백삼위 주보 광고비를 보내오고 계시는 광고주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을 주시는 이들 업소를 신자분들께서는 가능한한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 혼배미사 ♡

● 신부 박소영 프란체스카 & 신랑 박브랜든 안토니오

- 부모님 성함 : 박인식 토마스 & 이기원 리디아
박용연 올프라노 & 정정숙 베로니카
- 일시 : 9월28일(토) 낮 12시, 백삼위 한인성당
- 주례 : 이장환 마르티노 신부님
- 리셉션 : 혼배미사 직후 본당 친교장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9월22일(주일) : 본당의 날, 전신자 점심나누기
(육개장 PV 3반 봉사)
* 주일학교(10학년 샌드위치)
- 9월29일(주일) : 전신자 점심나누기
(토렌스동1반 / 카레라이스)
* 주일학교(7학년 핫도그)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장미순	고천용	권태만	김관기	김상규	김우용	성전헌금	장미순	고천용	권태만	김관기	김우용	김충섭		
	김운진	김재영	김종섭	민형기	박광자	박근식		박순자	방정복	신순철	이남현	익명	임순		
	박기돈	박순자	방정복	서정진	송영미	신순철		정혜영	정훈모	주대종	지경수	최미열	최원석		
	우영희	육근주	윤석구	이남현	익명	임순		한장환	황지영	이크리스					
	정혜영	정훈모	조소영	주대종	지경수	최미열									
	최원석	한장환	황지영	이크리스											
합계 : \$3,240							합계 : \$1,923								
주일미사 헌금 : \$2,924							리사이클링 : \$163.78							주보광고 : \$240	

공지사항

◆ 찬양 SOEL 밴드 단원모집

- 대상 : 주일학교 등록학생으로 7학년 이상
- 모집분야 : 드럼, 제1기타, 남성보컬
- 오디션 : 9월22일(주일) 낮12시 2층 교사실
- 문의 : 데이빗 황 음악교사 ☎(310)956-2612

◆ 주일학교 앙상블 단원 모집

- 대상 : 주일학교 등록학생으로 6학년 이상
- 모집분야 : 현악기, 관악기
- 오디션 : 10월6일(주일) 낮 12시 2층 교사실
- 문의 : 크리스티나 진 음악교사 ☎(310)781-0856

◆ LA 한국교육원의 뿌리교육

- 일시 : 9월29일(주일) 낮 12시30분~오후 3시30분
- 장소 : 강당, 유아실
- 내용 : 두그룹으로 나누어 한국화(부채만들기), 사물놀이연습
- * 문의 : 김화경 스텔라 한국학교장 ☎(310)464-7490

◆ 견진교리반 학생모집(2013~2014 학년도)

- 대상 : 주일학교 10학년~12학년
- 수업일시 : 9월1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강당
- 문의 : 신동운 빈첸시오 견진교리교사 ☎(310)744-5878

남가주 소식

◆ 제17회 남가주한인 가톨릭미술가회 정기전

- 전시기간 : 9월27일(금)까지 계속
- 장소 : Lee & Lee 갤러리(3130 월서블러바드 #502, LA)
- 지도신부 : 김해원 가브리엘 신부
- 문의 : 회장 제인 장 (818)667-2877

◆ 제14회 말씀의 초막절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 일정 : 오늘주일(22일)개막~28일(토)
- 개막미사 : 22일 오후 4시, 주례사제: 김기현 알렉스 신부
- 주간예절 : 23일~27일
- 강의 : 28일 오전 10시~오후 4시(제병영 가브리엘 신부)
- 폐막미사 : 28일 오후 4시
- 주관 : 남가주가톨릭성서 모임(CBLM)
- 장소 : 6751 Western Av. 부에나파 ☎(714)521-1345

◆ 제2기 천주교 아버지학교에 초대합니다.

- 첫모임 : 10월13일(주일) 오후 3시(매주일 5주간)
"아버지의 사랑이 가정을 세운다."
- 장소 : LA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 문의 : 오재민 바오로 (562)505-8070
- 주관 : 성마태오 한인천주교회

소공동체 9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신헌화 헬레나 213-200-9538 9/6(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박선화 안나 701-6343 9/14(토) 오후 7시
	3	박현희 프란체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체스코 592-4739 9/13(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엄해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김교복 레오 328-1827 9/15(일) 오후 5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이형삼 요셉 375-7397 9/14(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코 617-1132	장정진 베로니카 713-7779 9/13(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9/20(금) 오후 7시30분
	2	최순옥 스텔라 951-4710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9/4(수) 오전 11시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9/14(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정동호 허상바오로 404-1607 9/16(월) 오후 7시 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주대중 다니엘 818-640-3656 9/21(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9/13(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리스티아 482-9108	김관기 라파엘 541-3687 9/7(토) 오후 7시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민희석 요한 818-1799 9/7(토) 오후 6시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김선재 바오로 617-3568 9/10(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가정의 날	
-------	--

☺ 서로 인사 합니다. ☺

내 인생의 우선순위

“엄마도 TV에 나왔으면 좋겠어.”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나운서다! TV에도 나온다.”라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엄마는 친구들이 듣지 않는 아침 시간 라디오에만 나오니, 그게 아쉬웠나 봅니다.

둘째를 낳고 나서 TV 프로그램은 안하고, 라디오 <황정민의 FM 대행진>을 진행한 지 3년이 지났을 무렵에 생긴 일입니다. 그동안 몸도 안 좋았지만 아이에게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들어오는 프로그램을 몇 번 고사하고 나니, 아예 일이 뜰해졌습니다.

사실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무언가 하나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매개체가 되어 다른 프로그램도 들어오지만, 아예 TV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있으면 금방 잊혀지기 마련인 게 방송국의 생리입니다. 또 일을 열심히 하려면 방송 시간에만 반짝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팀과 하나가 되어 캐릭터를 잡아야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이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애를 쓴 건 아니었지만, 일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함께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데 한몫을 해낸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TV 프로그램은 고사하고, 개인적인 소망도 이뤄내지 못해 책을 쓰기로 결심하고는 한참을 한 줄도 쓰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첫째를 낳고 나서는 아이를 재워놓고 새벽까지 혼자 글을 쓰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지금은 아이를 재우다가 제가 먼저 잠들어 버리기 일쑤입니다. 글을 써야겠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만 굴뚝갈지, 몇 주가 지나도록 단 몇 시간도 집중할 틈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꾸 마음만 앞서게 되는 것 같아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은 없는지, 일주일 간의 스케줄을 30분 단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회사 일과 장을 보고 요리하는 것은 기본이고,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고, 먹이고, 씻기고, 재우기 등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엄마들에겐 처리해야 할 일들이 늘 쌓여 있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에너지도 모자라고, 앞으로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할까 봐 조금 울적했습니다. 언제나 분주하고, 피곤하고, 지치는 이유가 있지않을까...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싶어서 한 번 우선순위를 짚아 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내게 제일 중요한지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게는 하느님과 시간이 우선순위에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우선순위에 ‘잠깐 쉼’의 시간을 넣기로 했습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시간을

내지 않으면, 저는 매번 습관적으로 허덕이며 살아갈 것입니다. 바쁘게 지내지 않으면 어색하고 불안한 저의 일상 속에서 ‘잠깐 쉼’의 여백으로, 하던 일을 멈추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라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 황정민 아네스 / KBS아나운서

☞ 성체를 모시면서 제가 깨끗하지 못한 것 같아 죄스럽고, 이게 모령성체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같은 내용으로 고해성사를 보는 것도 부담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낙약하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느끼는 욕구에 대해서도 스스럼없이 표현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다른 이 앞에서 나의 문제를 드러내기도, 또 인정하기도 너무나 어려워 합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며 심리 치료사인 모건 스콧 펙(Morgan Scott Peck)은 “퇴행이 없이는 치료 또한 없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심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방어기제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치 어린아이처럼 치료자의 돌봄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만남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성숙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하느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오히려 아버지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자녀로서의 나의 모습을 체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위로와 희망을 얻어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죄책감은 더욱 커지고, 하느님 앞에서 느끼는 부끄러움과 두려움 역시 더욱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 홍성민 신부 / 부산교구 임호성당 보좌

-참 다행이야-

재물, 참 좋지.

그러나 목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신앙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쯤은 알고있지. 말은 그래도 팔아 재물이 될 거 같았으면 지금의 이 신앙인들 온전했을까. 그동안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건 팔아도 재물이 되지 않는다는 걸 벌써 알았기 때문일지도 몰라. ◆이영 아네스 / 수필가